

섬유기업, 중국 섬유전시회 대거참가

국내 섬유기업 111사가 10월22일 중국 상하이(Shanghai)에서 개막된 상하이국제섬유전시회에 참가해 시장 개척에 나선다고 코트라(KOTRA) 상하이무역관이 발표했다.

KOTRA는 전시회에 한국관을 개설해 섬유산업 부활을 꿈꾸는 국내기업들이 글로벌 트렌드를 익히고 수출 부진 타개를 위한 비즈니스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10월25일까지 열리는 전시회에 세계 각국에서 3000사 이상이 참가하면 5만여명의 관람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KOTRA는 10월23일 한국의 날(KOREA DAY) 행사도 열어 국내기업들이 마드리드(Madrid), 밀라노(Milano), 홍콩(Hongkong) 등 주요 패션도시 바이어 17사와 중국 바이어 80여사를 직접 만나 수출상담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학저널 2012/10/22>